

童詩 봄

우리애기는

아래밭추에서 코을코을,

고양이는

부뚜막에서 가룡가룡

애기바람이

나무가지에 소을소을

아저씨 햇님이

하늘한가운데서 쩌앵쨌앵。

一九三六 十月。

봄

우리 애기는

아래 밭추에서 코을코을

고양이는

부뚜막에서 가룡가룡

애기 바람이

나뭇가지에 소을소을

아저씨 햇님이

하늘 한가운데서 쨌앵쨌앵

1936. 10.